

국제도시개발협력의 기회: UN-Habitat 다자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현

이번 워크숍은 국제도시개발협력의 기회를 유엔 해비타트 다자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아시아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이 UN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 유엔해비타트(United Natio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는 1978 년에 설립된 유엔 (UN) 산하 기구로, 중앙정부, 시정부, 시민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5 개 대륙 70 여 개국에 사무소가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네트워킹 등을 책임지는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 있고, 각 지역의 국가 사무소를 관리하는 지역사무소는 나이로비, 후쿠오카(Fukuoka), 리우 데 자이네로(Rio de Janeiro)에 있다.

워크숍에서는 첫째, 유엔해비타트의 역할 및 구성,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둘째, 본부와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예: 정부정책수립연구), 다자협력 방식, 한국의 여러 기관과 협력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도시/지역개발 연구에서의 국제협력시 주의사항과 전략 등을 제시한다. 나아가 실제로 아시아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 향후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타입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 실효성, 추진 전략 등을 논의 한다. 향후 실제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궁극적 목표이며,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엔 해비타트와 같은 국제 기구와 협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와 절차 등을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이주현은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사업단 소속으로, 지난 17 년간 국제도시전문가로 아시아와 유럽에 소재한 국제기구 및 연구소에서 도시/인프라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인프라 개발이 야기하는 사회공간 변화, 스마트도시개발의 사회적 성과, 다층적 거버넌스 전략, 녹색성장도시전략 등이다. 영국에서 도시재생 석사와 연구석사 학위를 받고, 네덜란드에서 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기구 (ADB, UN-Habitat, UNESCO 등)에서 National Urban Development Strategy, 녹색성장 도시개발전략, 문화도시재생정책, 스마트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 전략, 기후변화적응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연구해왔다. 국제기구에서 technical advisor 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다자협력 (multi-lateral) 프로젝트 기획 및 기금 조성, 다자협력플랫폼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는 국제개발협력, 지역개발정책 연구뿐 아니라 아시아-유럽-미국 지역의 스마트 도시 비교연구로 다양한 맥락에 맞는 정책 및 거버넌스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주요 논문으로는 "Enhancing Social Outcomes from Mega Urban Transport Development: An Integrated Approach to Transport and Spatial Planning"과 "Smart City Transitions as Socio-technical Innovation: A Tale of Four Cities" 등이 있다.

Date & Time: June 3 (Thu), 2021, 14:00-16:00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304